

# 평화에 역행하는 불장난소동

남조선군부호전장들이 도발적폭언을 일삼으며 평화에 역행하는 불장난소동을 벌이며 벌레놓아 내외의 커다란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국방부 장관 정경두가 제50기 의무사관 및 제17기 수의사관입관식 축사라는 데서 《북이 군사적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군사대비 및 헌법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도발적말발을 뱉어대고 있다.

이러한 속에 남조선군부는 포항앞바다에 수많은 함선과 지축기, 해병대부대를 끌어들이어 합동상륙훈련이라는 것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았다.

해병대가 상대방의 해안에 대한 상륙작전을 기본으로 하는 무력으로서 공격작전의 척후대라는 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상륙작전 그자체가 상대방을 노린 전형적인 공격작전이다.

이보다 앞서 남조선군부호전장들은 미국과 야합하여 지난해 11월에 연기했던 연합공중훈련을 재개하였다.

《F-15K》, 《KF-16》 전투기와 남조선군기 미군의 F-16 전투기들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남조선에서 또다시 재개된 연합공중훈련은 보수 《정권》 시기에 공화국의 주요시설들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상하여 감행되었던 도발적인 남조선미국연합훈련인 《비밀전투 에이스》를 대체한 것이다.

남조선군부호전장들이 벌려놓은 전쟁연습들은 공화국에 대한 공공연한 군사적 대결선언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대유행 전염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남조선에서도 재난과 피해가 계속 늘어나 도처에서 아우성소리가 그칠줄 모르고 있다.

그런 속에서도 남조선군부가 외세와 야합하여 전쟁연습에 기를 쓰고 매달리는 것을 보면 남조선이 평화정착을 하지 않고서는 견디기 힘든 모양이다.

남조선군부가 동족을 겨냥한 이번 전쟁연습들에 아무런 《년례적이고 통상적인

훈련》의 감투를 씌워도 그 전략적, 도발적정체는 감출 수 없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동족을 반대하는 군부호전장들의 위험천만한 전쟁책동을 단죄규탄하며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대행위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고 있다.

얼마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남조선군부 외세와 야합하여 연합공중훈련을 재개한것을 규탄하

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성명에서 《한미당국은 또다시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며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의 합의정신을 다시 한번 훼손하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진정성과 의지가 있다면 한미연합군사훈련부터 철폐해야 한다》, 《조선반도평화를 가로막는 북침전쟁연습은 일체 중단해야 한

다》고 요구하였다.

다른 시민사회단체들도 미국과 남조선군부가 이번 훈련이 《년례적이고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변명하며 그 침략적정격을 감추려 하지만 《북을 적으로 겨냥한 전쟁연습이라는 본질을 숨길 수 없다》, 《공포하면 전쟁에 적극 나설것이라고 밝혔다》고 요구하였다.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전쟁연습반대투쟁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지키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의지의 분출이다.

본시기자 주광일

남 조선의 통일부가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발표하고 협력교류와 같은 잡다한것들을 꺼내며 뽐냈었다.

저들도 뽐냈었다가 한데 그 알파한 속신을 누가 모르겠는가.

통일부는 남조선에서 《개점휴업부서》, 《공밥먹는 부서》로 비난받고 있다. 누구를 탓할것도 없다. 제스스로 받는 대접이다.

통일부가 해마다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업무계획》, 《시행계획》과 같은 요란한 문서장들을 발표하고있지만 그것은 북남관계를 위해 노력한다는 생색이나 내기 위한 것이지 아니하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민족비극의 상징인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북과 남이 공동등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2020년 통일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함에 이어 불순한 목적을 추구한 《2020 통일문제리해》라는 교재나 발간한 통일부이다.

이렇게 만사람의 손가락질

을 받는 일반 골라하는 통일부가 또다시 전혀 실현가능하지도 않는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이나 발표한다고 하여 그것을 폄하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외세의 눈치나 보면서 그들의 승인이 없이는 단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다음이 남조선당국이다.

그런 주제가 그 무슨 협력교류타령을 늘어놓는 것은 내외여론을 기만해보려는 한갖 술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에서 통일부가 발표한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에 대해 《실체없는 대북정책의 복사판》, 《반쪽짜리 일회성계획》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은 우연치 않다.

남조선당국이 누구도 귀기울이지 않는 말장난질이나 늘어놓는다고 하여 북남관계를 교착국면에 몰아넣은 저들의 죄악이 덜어질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 것이다.

김주혁



## 부정선거 판장난

남조선의 《미래통합당》이 날로 격화되고있는 내부싸움으로 골머리를 앓고있다고 한다.

최근 당을 비상대책위원회체제로 운영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인을 끌어들이기로 한것만 해도 그렇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언론들은 《미래통합당》 안에 각 계파들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조기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당권을 둘러싼 파벌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져 혼란만 가중되면서 당이 민심의 더 큰 배척을 당할수 있다는 우려와 불안이 작용하였기때문이라고 분석하고있다.

《미래통합당》에는 당장 당대표직을 맡을만한 인물이 없다고 한다.

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인을 다시 받아들이자는 의견을 겨우 모을수 있었는데 김종인은 자신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려면 《미래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회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당헌, 당규에 구애받지 않는 전권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

지 않고있다고 한다.

그러자 《미래통합당》내에서 중진이라고 자처하는 인물들은 선거에서 낙선된자가 당지도부에 계속 남아있는것은 말도 안된다.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하면서 원내대표인 심재철이 새 원내대표선출을 위한 행정적 절차만 주관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소위 《보수원로》라고 하는자를 역시 걸꺾으면 비상대책위원회체제로 넘어가는것은 《미래통합당》의 고질병인것 같다. 가능한것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 당지도부를 새로 구성하는 편이 더 나을것이라고 충고하는 늙은도 발리고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은 지난시기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외부인물을 데려다놓고 그 책임을 넘겨줘왔고 그 소용무였다고 한다.

여기에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 대표 홍준표까지 가세하고있다. 그는 김종인이 《당헌, 당규에 구애받지 않는 전권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

로 일관하면서 마치 자신이 황제라도 된듯 하다.》면서 《한중도 안되는 야당권력이라도 놓치고싶지 않은 허욕은 리해하지만 추하다.》, 《이런 오만방자한 사람이 당에 들어오면 당이 망한다》고 공격하고있다. 지어 《김종인은 퇴출전과자》라면서 그의 과거비행을 더 공개할수도 있다고 위협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자 《미래통합당》안에서는 홍준표가 《석고대죄와 환골탈태도 모자랄 판에 자칭 《니천투구》를 자랑하고있다.》면서 《본인의 복당과 대선후보가 어려워진 모양》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그야말로 민심의 버림과 배격속에 파벌의 구렁렁이 에 처박힌 력사의 퇴물들의 구차한 살기명 찾기가 아닐수 없는것이다.

예로부터 말하는 집안에 싸움만 잦다고 했다. 서로 물고뜯는 개싸움질만 일삼고있는 《미래통합당》이 민심의 배척을 받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본시기자 박철남

판이고 지금 《미래통합당》간판도 불과 몇달전에 지은 이름인데 또 간판을 바꾼다니 참!

이름이나 고쳐줬는다고 당이 변하고 말하는 집안의 운명이 달라야 될수 있겠습니까.

《유신》 독재자의 하수인이 되었다가 그 후엔 박근혜의 치마자락에 묻어다니던 늙은이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자리에 앉힌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신》잔당세력, 변절을 모르는 보수팔종이라는 말만 듣고 민심의 배격을 당할수밖에.

까짓것 그해보았잖아 남마에 누대끼조각 하나 더 붙이는셈이라 하겠습니까.

《미래통합당》 자체가 원래 현여파진 남마들로 겨우 겨우 엮어놓은 누대끼정당에 불과

하니가요.

박근혜가 탄핵되자 《새누리당》이라는 오명으로 불리우던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꾼것을 보면 한낱 변절한 거지못처럼 여러 패당으로 갈기갈기 찢겨졌다가 최근에 뭉쳐

《유신》 독재자의 하수인이 되었다가 그 후엔 박근혜의 치마자락에 묻어다니던 늙은이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자리에 앉힌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신》잔당세력, 변절을 모르는 보수팔종이라는 말만 듣고 민심의 배격을 당할수밖에.

까짓것 그해보았잖아 남마에 누대끼조각 하나 더 붙이는셈이라 하겠습니까.

《미래통합당》 자체가 원래 현여파진 남마들로 겨우 겨우 엮어놓은 누대끼정당에 불과

한낱 뭉쳐

《유신》 독재자의 하수인이 되었다가 그 후엔 박근혜의 치마자락에 묻어다니던 늙은이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자리에 앉힌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신》잔당세력, 변절을 모르는 보수팔종이라는 말만 듣고 민심의 배격을 당할수밖에.

까짓것 그해보았잖아 남마에 누대끼조각 하나 더 붙이는셈이라 하겠습니까.

《미래통합당》 자체가 원래 현여파진 남마들로 겨우 겨우 엮어놓은 누대끼정당에 불과

한낱 뭉쳐

《유신》 독재자의 하수인이 되었다가 그 후엔 박근혜의 치마자락에 묻어다니던 늙은이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자리에 앉힌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신》잔당세력, 변절을 모르는 보수팔종이라는 말만 듣고 민심의 배격을 당할수밖에.

까짓것 그해보았잖아 남마에 누대끼조각 하나 더 붙이는셈이라 하겠습니까.

《미래통합당》 자체가 원래 현여파진 남마들로 겨우 겨우 엮어놓은 누대끼정당에 불과

한낱 뭉쳐

《유신》 독재자의 하수인이 되었다가 그 후엔 박근혜의 치마자락에 묻어다니던 늙은이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자리에 앉힌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신》잔당세력, 변절을 모르는 보수팔종이라는 말만 듣고 민심의 배격을 당할수밖에.

까짓것 그해보았잖아 남마에 누대끼조각 하나 더 붙이는셈이라 하겠습니까.

《미래통합당》 자체가 원래 현여파진 남마들로 겨우 겨우 엮어놓은 누대끼정당에 불과

《미래통합당》은 당장 당대표직을 맡을만한 인물이 없다고 한다.

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인을 다시 받아들이자는 의견을 겨우 모을수 있었는데 김종인은 자신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려면 《미래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회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당헌, 당규에 구애받지 않는 전권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



《미래통합당》은 당장 당대표직을 맡을만한 인물이 없다고 한다.

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인을 다시 받아들이자는 의견을 겨우 모을수 있었는데 김종인은 자신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려면 《미래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회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당헌, 당규에 구애받지 않는 전권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

《미래통합당》은 당장 당대표직을 맡을만한 인물이 없다고 한다.

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인을 다시 받아들이자는 의견을 겨우 모을수 있었는데 김종인은 자신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려면 《미래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회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당헌, 당규에 구애받지 않는 전권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

《미래통합당》은 당장 당대표직을 맡을만한 인물이 없다고 한다.

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인을 다시 받아들이자는 의견을 겨우 모을수 있었는데 김종인은 자신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려면 《미래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회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당헌, 당규에 구애받지 않는 전권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

《미래통합당》은 당장 당대표직을 맡을만한 인물이 없다고 한다.

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인을 다시 받아들이자는 의견을 겨우 모을수 있었는데 김종인은 자신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려면 《미래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회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당헌, 당규에 구애받지 않는 전권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

《미래통합당》은 당장 당대표직을 맡을만한 인물이 없다고 한다.

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인을 다시 받아들이자는 의견을 겨우 모을수 있었는데 김종인은 자신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려면 《미래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회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당헌, 당규에 구애받지 않는 전권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

얼마전 남조선에서 서평을 광화문광장에 설치되어 있던 《전두환구속 촉구동상》이 광주시에 옮겨졌다고 한다.

최수복을 입은 전두환이 목에 교수대올가미를 걸고 의상창안에 갇혀 무릎을 꿇고있는 불꽃을 형상화한 동상이다. 이 불꽃스러운 동상은 지난해 12월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설치된것이라고 한다.

전두환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광주로 옮겨놓았다고 한다.

전두환이 《개엄군》 무리를 내몰아 광주의 항쟁용사들과 무고한 시민들을 다치는 데로 학살한 극악한 살인마라는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인악마는 지금껏 《광주시민들에게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폭력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

자위권을 발동한것》이라는 궤변만 늘어놓으며 친인공노획 대살해범죄사실을 한사코 부인해왔다.

얼마전에도 역도가 1985년 당시 광주학살민행은 은폐하기 위해 진상을 외곡한 책을 만들어 해외에 내몰려 했던 사실이 밝혀져 여론의 분노를 자아냈다.

친인공노획 대학살범죄를 저지르고서도 반성은커녕 죄악에 죄악을 덧쌓으며 지금도 배짱이 팔르나 치고 올수있거나 돌아치는 극도로 과렴치한 추물이 전두환이다.

사람들의 목숨을 파리물처럼 여기며 마구 죽이고 너털웃음을 지는 살인악마이니 인간이 양심이라는것이 요물만큼도 있을리 만무하다.

전과로 국민의 생명이 심히 위협을 받는 속에서도 전과 확대의 주범인 신천지교회를 비호해나섰다고 주장하였다.

사실은 《미래통합당》이 리명박, 박근혜악력력에 부역하며 경제위기를 몰아

《미래통합당》은 당장 당대표직을 맡을만한 인물이 없다고 한다.

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인을 다시 받아들이자는 의견을 겨우 모을수 있었는데 김종인은 자신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려면 《미래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회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당헌, 당규에 구애받지 않는 전권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

《미래통합당》은 당장 당대표직을 맡을만한 인물이 없다고 한다.

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인을 다시 받아들이자는 의견을 겨우 모을수 있었는데 김종인은 자신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려면 《미래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회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당헌, 당규에 구애받지 않는 전권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

《미래통합당》은 당장 당대표직을 맡을만한 인물이 없다고 한다.

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인을 다시 받아들이자는 의견을 겨우 모을수 있었는데 김종인은 자신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려면 《미래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회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당헌, 당규에 구애받지 않는 전권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

《미래통합당》은 당장 당대표직을 맡을만한 인물이 없다고 한다.

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인을 다시 받아들이자는 의견을 겨우 모을수 있었는데 김종인은 자신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려면 《미래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회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당헌, 당규에 구애받지 않는 전권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

《미래통합당》은 당장 당대표직을 맡을만한 인물이 없다고 한다.

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인을 다시 받아들이자는 의견을 겨우 모을수 있었는데 김종인은 자신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려면 《미래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회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당헌, 당규에 구애받지 않는 전권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

남조선인리버트신문 《민족일보》가 4월 23일 《민생파탄의 주범인 미래통합당은 자진해체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실은 《미래통합당》은 언제 한번 민생에 관심이 없었다고 하면서 《COVID-19》

전과로 국민의 생명이 심히 위협을 받는 속에서도 전과 확대의 주범인 신천지교회를 비호해나섰다고 주장하였다.

사실은 《미래통합당》이 리명박, 박근혜악력력에 부역하며 경제위기를 몰아

《미래통합당》은 당장 당대표직을 맡을만한 인물이 없다고 한다.

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인을 다시 받아들이자는 의견을 겨우 모을수 있었는데 김종인은 자신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려면 《미래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회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당헌, 당규에 구애받지 않는 전권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

《미래통합당》은 당장 당대표직을 맡을만한 인물이 없다고 한다.

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인을 다시 받아들이자는 의견을 겨우 모을수 있었는데 김종인은 자신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려면 《미래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회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당헌, 당규에 구애받지 않는 전권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

《미래통합당》은 당장 당대표직을 맡을만한 인물이 없다고 한다.

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인을 다시 받아들이자는 의견을 겨우 모을수 있었는데 김종인은 자신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려면 《미래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회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당헌, 당규에 구애받지 않는 전권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

《미래통합당》은 당장 당대표직을 맡을만한 인물이 없다고 한다.

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인을 다시 받아들이자는 의견을 겨우 모을수 있었는데 김종인은 자신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려면 《미래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회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당헌, 당규에 구애받지 않는 전권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

《미래통합당》은 당장 당대표직을 맡을만한 인물이 없다고 한다.

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인을 다시 받아들이자는 의견을 겨우 모을수 있었는데 김종인은 자신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려면 《미래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회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당헌, 당규에 구애받지 않는 전권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

## 광주로 끌려간 살인악마의 물골



그러나 죄에는 벌이 따르고 반인륜죄악에는 시효가 없는 법이다. 광주로 끌려간 전두환과 그의 수직스러운 동상은 수많은 시민들의 피로 두손을 죄신 살인피수를 결코 용서치 않으려는 남조선민심의 반영이다.

본시기자 주광일

《미래통합당》은 당장 당대표직을 맡을만한 인물이 없다고 한다.

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인을 다시 받아들이자는 의견을 겨우 모을수 있었는데 김종인은 자신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려면 《미래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회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당헌, 당규에 구애받지 않는 전권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

《미래통합당》은 당장 당대표직을 맡을만한 인물이 없다고 한다.

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인을 다시 받아들이자는 의견을 겨우 모을수 있었는데 김종인은 자신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려면 《미래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회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당헌, 당규에 구애받지 않는 전권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

《미래통합당》은 당장 당대표직을 맡을만한 인물이 없다고 한다.

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인을 다시 받아들이자는 의견을 겨우 모을수 있었는데 김종인은 자신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려면 《미래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회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당헌, 당규에 구애받지 않는 전권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

《미래통합당》은 당장 당대표직을 맡을만한 인물이 없다고 한다.

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인을 다시 받아들이자는 의견을 겨우 모을수 있었는데 김종인은 자신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려면 《미래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회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당헌, 당규에 구애받지 않는 전권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

반역정당은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주장

반역정당은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주장

반역정당은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주장

반역정당은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주장

반역정당은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주장

반역정당은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주장

반역정당은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주장

반역정당은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주장

반역정당은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주장

반역정당은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주장

반역정당은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주장

반역정당은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주장

반역정당은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주장

반역정당은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주장